

## 신임회장 취임사

남궁성은 (제5대 회장, 가톨릭대 명예교수)



여러모로 능력이 모자란 저를 제5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으로 뽑아주신 의학한림원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4월에 한국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서 한국의학 및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창립한지 내년이면 어언 1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제근 제1대 회장님으로부터 현재까지 훌륭하신 선임회장님들의 노력으로 그 기초를 다짐과 아울러 회원님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의학계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바쁘신 교수생활 중에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의학한림원 고우사업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임기 중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조승열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임원님들께 의학한림원 회원들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학한림원은 기초와 임상분야에서 가장 업적이 많은 석학교수들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의학, 약학, 간호학 및 영양학 분야를 포함한 7개 분야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전체 의과학 분야를 다루는 최고 의과학인들의 모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발전해 온 의학한림원은 그 역사가 아직은 짧기 때문에 국내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나 한국공학한림원 그리고 미국의학한림원에 비하여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취임사 2쪽 계속)

## 전임회장 퇴임사

조 승 열 (제4대 회장,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 3년간의 회장직 수행 2010년 1월 회장직을 맡을 때에 조직 운영의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 주셔서 3년을 큰 과오 없이 끝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분들이 대과없이 직책을 끝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투적인 말을 하신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직책을 끝내면서 생각하니 그 말이 그렇게 실감이 날 수 없습니다. 또 직책의 짐을 내려놓으면서 긴장감을 덜게 되어 기쁩니다.

회장직에 선출된 다음날 대한민국학술원 전회장인 신이호왕 교수께서 전화하시면서 의학한림원을 널리 알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부말씀을 가슴에 안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우선 조직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집행이사회나 각 위원회가 정한 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였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 의학한림원의 업무는 대한의학회 사무국 (최영학 국장 이하)에서 도왔지만 2010년 6월 사무원을 공모 채용하여 단출하지만 사무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건물 7층에 의협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회장의 배려로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사무국에서는 뉴스레터를 창간하고 (김진 집행이사 담당)과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회계 처리 (안영수 집행이사 담당) 방식을 도입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사에게 회계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한림원의 조직 중 분회는 중요 조직입니다. (퇴임사 2~4쪽 계속)

(취임사 계속)

의학한림원이 단시간에 이를 극복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회장으로서는 제 임기동안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학한림원 회원 선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분회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각 분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석학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한국의 미래 의학 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의학한림원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분화된 분야로 나누어져 그 실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의학한림원의 향후 발전은 분회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점차 악화되어가는 재정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의학한림원의 설립이념상 재정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학한림원의 연간예산은 국내의 타 기관에 비하여 10%도 되지 않으며 이것마저 점차 축소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회원 여러분들의 연회비가 인상된 것도 어려운 제정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의학한림원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의학한림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의학한림원에서 다루어지는 의학포럼과 원탁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여기서 토론되어진 의견과 결론을 요약 및 출간하는 의학한림원의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의학용어 표준화 문제는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통하여 의학한림원만이 할 수 있

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의학교육이나 각 학회의 학술용어 선택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의학한림원 회원 수의 문제나 기타 의료영역에 관계되는 분야로의 회원 확대 문제도 의학한림원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인사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볼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내년인 2014년이면 의학한림원이 설립된지 10년이 됩니다. 의학한림원의 10년을 성대하게 축하할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향후 100년의 의학한림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의학한림원은 아직도 크지 않은 의학단체이고 또 활동량이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미래의 의학한림원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율성과 윤리성을 가진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해진 의학한림원의 연구 업적과 토론 결과는 한국 의과학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자문기관으로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학한림원의 목표가 단시일 내에 쉽게 달성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를 위하여 제 임기중 눈에 보이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여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임사 계속)

분회가 하는 일은 신입 회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분회에 맡기려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실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학한림원의 가장 중심적인 조직은 집행이사회로서 회장, 부회장과 집행이사 3명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거쳐 기획한 업무를 보고하고 토의

후 정하거나 평의회에 올릴 안건 등을 선정하는 기구로서 2개월마다 개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제출된 안건을 주로 토의하고 결정하였으며 각위원회의 운용규정을 제정하거나 새로이 마련하고 승인한 것도 집행이사회였습니다.

의학한림원은 회원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정책개발

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4개 상설위원회와 화이자의학상 운영위원회, 의학관련 용어 개발 및 표준화 위원회, 의학연구수준평가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석학단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회원의 선출과정과 회원의 종류 규정 등을 검토하는 회원인사위원회 (지제근 위원장)는 그동안 명예회원제 신설, 준회원제 폐지, 원로회원을 종신정회원으로 변경, 회원 정원 책정에 대한 규정 변경, 임기정회원과 종신정회원의 회비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이사회, 평의회,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특히 원로회원을 종신정회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집행이사회에서 여러 번 토의한 다음 통과시켰습니다. 기본 정신은 석학단체의 정회원은 기본적으로 종신이어야 한다는 외국 석학단체의 관례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위원회 (지훈상 위원장)는 명예회원제도 도입요구, 회계 투명성 확보 조치안을 마련하여 집행이사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개발위원회 (안윤옥 위원장)는 공공자료를 의학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데 지난 3년간 노력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공공자료를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각 법률과 시행령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술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가장 바쁜 활동을 한 위원회입니다. 매년 학술포럼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모두 3회 (2011년 소금과 건강, 2012년 항암제 임상 시험제도, 비만과 건강) 개최하였습니다. 학술포럼의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만드는 계획은 항암제 임상시험제도에 관한 보고서만 재원이 마련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갈 길을 묻다” 단행본 제작을 결의하여 2011년 발간하였고 미국의학한림원 (The 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보고서를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전략”, “21세기 국가 암 임상시험제도” 등 보고서 2권을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학술위원회는 한국암연구재단 (안윤옥 이사장)이 암 연구 과제를 심사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과제를 심사하였습니다. 안윤옥 이사장은 평소 의학한림원이 연구과제 심사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인 화이자의학상운영위원회는 2009년 의학한림원이 맡게 되기 이전의 운영체제를 이어 받아 심

사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을 하시는 한국화이자 제약에 깊이 감사합니다. 의학관련 용어 개발 및 표준화 위원회 (강중명 위원장)는 15회에 걸쳐 원탁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발표자료집 제3집”이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의학한림원의 상설위원회가 됩니다. 의학연구수준평가위원회 (임재훈 위원장)는 집중적으로 SCI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의학연구업적 평가보고서 2009”를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각 위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이윤혜 선생에게 과중한 업무에 비해 너무 보수를 적게 주어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활동을 단행본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학한림원이 출판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용산구청에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학한림원을 출판사업자로 한 것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자체 수입을 확보하라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출간한 단행본의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하지만 앞으로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빛은 없지만 의학한림원은 재정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다른 석학단체과 달리 정부 용역이나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 용역 등을 받을 만한 실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술단체에 대한 후원금 등에 대하여도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한국의학원 후원금은 재임기간 중 전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전임 회장에 모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위에서 나열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회장 임기동안 많은 회원이 의학한림원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정남식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카바수술에 대하여 의학한림원의 의견 제시를 건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임정기 집행이사는 한국연구재단의 과제심사단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의학한림원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의견서를 보냈고 개편안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분과위원장 이명철 교수는 대한민국과학기술단체대연합 (대과연)에 의학한림원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대과연 17개 단체의 하나로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재임기간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석학단체의 모

습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였지만 조직을 키우지 못하고 사업을 확충할 수 없었으며 아직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고 대외활동이 미숙하여 의학한림원 발전을 가로막지 않았을까 반성합니다. 그러나 의학한림원의 명예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러나는 자리에서 그동안 저를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 전임 회장 세분께 감사하며 특히 저의 무리한 부탁을 바쁘신 중에도 들어 주신 최병인 학술위원장, 어려운 살림을 도와주신 안윤옥 정책개발위원장,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 단행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신 강종명, 임재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떠난 의학한림원 직원 전수인 선생도 저 때문에 고생하였다고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2013년도 의학한림원 정기총회 내용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 정회원 선출 및 원로회원 선임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부터 정회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1차 분회총회, 2차 회원인사위원회, 3차 평의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하고 29명의 정회원, 9명의 원로회원의 회원 선출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현재 원로회원 64명과 명예회원 6명, 정회원 32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 201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와 2013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2013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회원관리, 학술 진흥, 정책 개발, 의학용어표준화, 의학연구수준평가, 학술상, 회보 발간, 정보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약 3억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 -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해 신입회장에 남궁성은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부회장에 임정기 서울의대 교수가 각각 선출되었다. 감사는 정관 제12조 및 제16조에 의해 서울의대 박귀원 회원의 연임되었으며, 신입 감사로는 연세의대 박경아 회원이 선출되었다.

### - 정관개정(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총회에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준회원 제도를 폐지하여 정회원 제도를 강화하고, 정회원을 임기정회원과 종신통회원으로 구분하여, 원로회원을 종신통회원으로 변경하였다. 정회원 정원을 3년마다 총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집행이사회에 감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의 배석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의학관련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하고 정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도부터 정회원은 연회비 150,000원으로, 임원은 3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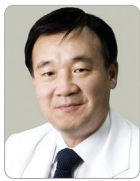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내용
회원 관리	1. 회원명부 제작, 2. 회원 가입 기준 마련
학술 진흥	1. 학술포럼 개최 - 제4회 학술포럼 개최 - 보고서 발간 2. IOM 번역도서 발간 3. 암연구지원사업 지원 과제 심사, 평가 - 지원 과제 심사, 평가 (2011년도 4과제) - 연구 진행 상황 평가(연 2회)
정책 개발	1. 공공기관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2. 학회 Special Plenary Session 지원 사업 - 대한의학회의 공동 사업 추진(협약 체결) 3. 공공기관자료의 의학연구 활용원칙 및 윤리기준 개발 4. 활용원칙 및 윤리기준의 법제화를 위한 추진기구 결성/운영 - 추진기구 결성 및 분과(3개) 활동 - 창립총회 개최
의학 용어 표준화	1.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2. 발표자료집 제작 3.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 운영
의학연구 수준평가	1. 한국의학연구업적 보고서 제3집 발간 준비 작업
학술상	1. 화이자의학상 - 기초의학상(1명), 임상의학상(1명) - 2009년부터 의학한림원 주관 - 한국화이자제약 후원 2.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회보 발간	1. 뉴스레터 발간 : 년 4회, 8면, 매호 1,000부 2. 시론, 최신소식, 의학한림원 및 회원 소식, 안내사항 수록
정보 운영	1. 전산장비 및 웹사이트 유지 보수 2. 전자결재 프로그램 개발 3. 웹사이트 운영



〈2013년도 신입회원과 함께〉

## 2013년도 신입 정회원 소개

(29명, 성명 가나다순)



**강성웅** (姜聖雄, Kang Seong Woong, 1959년생)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재활의학 분과  
연구분야: 재활의학 (심장질환 및 폐질환 재활, 신경·근·골격 재활, 척수 손상 재활, 물리의학 및 통증관리,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고영관** (高永寬, Ko Young Gwan, 1951년생)  
경희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제6분회 - 응급의학 분과  
연구분야: 응급의학 (소생 및 집중치치학, 중환자관리, 외상학, 환경응급의학, 영양)



**김영백** (金榮伯, Kim Young Baeg, 1953년생)  
중앙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신경외과 분과  
연구분야: 신경외과학 (척추신경외과, 노인신경외과, 신경손상, 말초신경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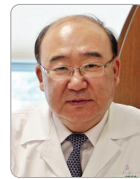
**김영식** (金英植, Kim Young Sik, 1957년생)  
울산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제4분회 - 가정의학 분과  
연구분야: 가정의학 (임상예방의학, 임상역학, 청소년의학)



**김인산** (金仁山, Kim In-San, 1959년생)  
경북의대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교수

제1분회 - 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  
연구분야: 생화학 (중양생화학, 단백질화학, 신호전달생화학)



**김장흡** (金章洽, Kim Jang-Heub, 1953년생)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산부인과학 분과  
연구분야: 산부인과학 (생식내분비 및 불임의학, 비노부인과학, 폐경기학, 사춘기부인과학, 산부인과내시경학)



**김재찬** (金在燦, Kim Jae Chan, 1952년생)  
중앙의대 안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안과학 분과  
연구분야: 안과학 (외안부, 각막, 안병리, 백내장, 콘택트렌즈, 포도막)



**김창근** (金昌根, Kim Chang Keun, 1963년생)  
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소아청소년과학 분과  
연구분야: 소아청소년과학 (알러지, 호흡기, 면역)



**김충현** (金忠鉉, Kim Choong Hyun, 1957년생)  
한양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신경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신경외과학 (신경종양, 뇌종양, 암)



**김효수** (金孝洙, Kim Hyo-Soo, 1959년생)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내과학 분과  
연구분야: 내과학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대동맥류)



**박근칠** (朴根七, Park Keunchil, 1956년생)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내과학 분과  
연구분야: 내과학 (중양학, 혈액학)



**박기호** (朴紀好, Park Ki Ho, 1962년생)  
서울의대 안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안과학 분과  
연구분야: 안과학 (녹내장, 백내장, 신경보호)



**박종완** (朴鐘完, Park Jong Wan, 1961년생)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제1분회 - 약리학 분과  
연구분야: 약리학 (분자약리, 순환기약리, 중앙생화학)



**배대경** (裴大慶, Bae Dae Kyung, 1946년생)  
경희의대 임상전문교원(명예교수)

제5분회 - 정형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정형외과학 (슬관절, 관절경, 류마티스, 정형외과 스포츠, 정형외과 연구학)



**손 주 태** (孫周泰, Sohn Ju-Tae, 1961년생)  
경상대 마취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마취통증의학 분과  
연구분야: 마취통증의학 (신경외과마취, 순환기약리, 기타)



**송 민 호** (宋敏鎬, Shong Minho, 1961년생)  
충남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내과학 분과  
연구분야: 내과학 (내분비학, 내분비-대사, 내분비생화학, 대사생화학, 신호전달생화학, 분자생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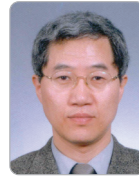
**송 시 영** (宋始英, Song Si Young, 1958년생)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내과학 분과  
연구분야: 내과학 (소화기, 소화기약리, 중앙, 중앙생화학 분자약리)



**송 재 관** (宋在寬, Jae Kwan Song, 1959년생)  
울산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제4분회 - 내과학 분과  
연구분야: 내과학 (순환기학)



**송 지 영** (宋芝永, Song Ji-Young, 1952년생)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제4분회 - 정신건강의학 분과  
연구분야: 정신건강의학 (정신신체의학 및 자문조정 정신의학, 정신병리진단학, 사법정신의학)



**안 세 현** (安世鉉, Ahn Sei Hyun, 1957년생)  
울산의대 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외과학 (유방학)



**안 진 환** (安珍煥, Ahn Jin Hwan, 1945년생)  
성균관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정형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정형외과학 (관절경, 슬관절, 정형외과 스포츠 골절)



**이 명 철** (李鎔哲, Lee Myung Chul, 1958년생)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정형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정형외과학 (슬관절, 관절경, 정형외과 스포츠, 정형외과 연구학, 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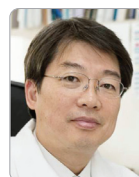
**이 승 덕** (李崇德, Lee Soong Deok, 1963년생)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제3분회 - 법의학 분과  
연구분야: 법의학 (유전자감식, 법의학리, 감식학, 의료법학, 배상의학)



**이 용 길** (李龍杰, Lee Yong Gil, 1955년생)  
경희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정형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정형외과학 (견주관절, 관절경, 정형외과 스포츠)



**이 장 희** (李章熙, Lee Zang Hee, 1959년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제7분회 - 치의학 분과  
연구분야: 치의학 (분자면역학, 신호전달생화학, 조직학)



**이 재 서** (李在瑞, Rhee Chae-Seo, 1961년생)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이비인후과학 분과  
연구분야: 이비인후과학 (비과, 소아이비인후과, 기타, 이과, 두경부외과)



**정 흥** (鄭興, Chung Hum, 1950년생)  
서울의대 안과학교실 교수  
제5분회 - 안과학 분과  
연구분야: 안과학 (망막, 유리체, 포도막)



**정 진 영** (鄭鎭英, Chung Chin-Young, 1955년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제5분회 - 정형외과학 분과  
연구분야: 정형외과학 (소아정형외과, 뇌성마비, 사지병형, 족부질환, 신경근육)



**홍 성 태** (洪性台, Sung-Tae Hong, 1954년생)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제2분회 - 기생충학 분과  
연구분야: 기생충학 (기생충증 역학, 진단기생충학)

## 회원 동정



### 서교일 (명예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순천향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서교일 박사를 선임하였고, 2013년 3월 1일자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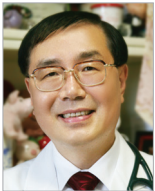
### 서유현 (정회원)

정회원이며 한국뇌연구원 초대원장인 서유현 교수(서울의대)는 2월 4일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단지에 뇌연구원 건물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11차 세계 치매-파킨슨학회에 초청받아 "The preventive and therapeutic effects of intravenous adipose-derived stem cells in Alzheimer's disease mice"에 관해서 초청 특강하였다. 또한 서교수는 3월 18일~19일 프랑스 스트라스버그에서 열릴 HESP(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이사회에 참석하여 향후 HESP의 발전방향과 2013년도 연구비 선정과제를 결정할 것이다.



### 이흥규 (정회원)

을지대학 석좌교수로 을지병원 내과과장으로 재직중인 이흥규 교수는 2013년 1월자 Journal of Diabetes Investigation에 'Extension of the mitochondria dysfunction hypothesis of metabolic syndrome to atherosclerosis with emphasis on the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and biophysical law'란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2013.2.20.일자 MDLinx (<http://www.mdlinx.com/>)에 머리 논문으로 선택, 소개되어 당뇨병, 대사증후군 및 동맥경화증에 관심을 가진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정명호 (정회원)

2012년도 하반기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만성 신부전증을 동반한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용출스텐트)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도 국제심장학회 첫 논문으로 한국심근경색증 등록 연구에 관한 논평(Safety and Efficacy of Drug Eluting Stent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From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가 게재되었다.

##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8호

| 발 행 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 발 행 인 | 남궁성은 | 편 집 인 | 김 진 | 인 쇄 | 아람에디트 Tel. (02)2273-2497